

2017년 12월 3일 "(강림절) 은혜를 구하는 갈망"(롬 5:20-21)

<도입>

CS Lewis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오늘은 우리의 마음 깊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본연의 갈망을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1] 설명하기 어려운 은혜

은혜란 "우리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진리의 부요함을 받고 누리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세상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눅 15 장. 1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에게 나머지 99 마리는 중요하지 않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계산적 반응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안다면 목자가 1 마리를 찾아 나서도 자기는 은혜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부으시는 은혜는 어떤 경우에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마 20 장. 각기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품꾼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비유는 모두를 약속대로 충족시키시는 은혜 차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반발하는 이유는 공평한 계산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이 드리는 헌신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 12 장. 마리아는 노동자 1 년치 수입에 맞먹는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더 가치 있을 것'이라는 가룟유다 의견에 동조할 것입니다. 계산상 큰 낭비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를 설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북해 합니다. 사람의 계산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알려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은혜란 내가 좀 더 나은 조건을 얻는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공부 더 잘하고, 좀 더 착하고, 더 많이 갖기 위해 얻는 선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은혜를 구하지 것입니다.

[2]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20 절)

20 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배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노예로 사는 방식만 알았기 때문에 자유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노예 때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했습니다. (한 청년이 사관학교 생도가 될 때 거기면 죄가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애굽에서는 단지 부도덕했던 일이 율법에서는 사형죄가 됩니다(예: 부모에게 패륜). 이것이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했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한 차원에서 죄를 알게 한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형제에게 바보라고 욕하면 지옥 갈 죄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십니다. 율법과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은 자는, 세상에선 죄가 아닌데 내 마음엔 죄로 기록됩니다. 이 죄 때문에 양심이 괴롭고 해방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3]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 형벌/행동규정을 지워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교는 긴 수행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 생각에서 나온 어떤 방법도 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죄인임을 자각하고 아파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본능적으로 압니다(구제불능).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대로 받아들여지고 싶다는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피어나게 됩니다.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 아파하고 진정으로 품어준다는 것을 알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자라도 예수님의 희생적 헌신의 사랑을 증거한 십자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눅 15 장.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모습 그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더기 같은 아들을 따지지 않고 품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구원입니다. 우리가 고쳐져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일생의 과정에서 은혜를 가로막는 악이 내 안에 있습니다. CS Lewis 는 “이 악은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면 혐오하고, 이보다 더 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악이 없다”고 했습니다. 교만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정도(이 정도)면 됐다’는 것입니다.

옛 한 천사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벧전 5:5 “...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행인 것은, 교만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내게서 교만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맺음>

주의 진리에 비추이면 ‘나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은혜만을 구합니다’ 이 갈망은 십자가를 통해 희생을 다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조건을 따지지 않고 품으시는 은혜를 얻게 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 날마다 고백 되고 채워지는 축복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괜찮으시다면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2. 내 존재의 차원에 대하여 나는 과거에 어떤 은혜를 구했으며 지금은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까?
3. 성경을 보면 교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죄로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것 같은지 자유롭게 말씀해 봅시다. 교만에 대한 나의 정의는 무엇이며, 성경은 교만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